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 Bibliotherapy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Public Library

박 금 희(Keum-Hee Park)**

정 연 경(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측정도구 |
| 1.1 연구의 목적 | 5. 연구결과의 분석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분석 |
| 2.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 5.2 실험집단내 측정시기별 효과 분석 |
| 2.1 독서치료의 개념 | 5.3 문장완성 검사의 내용 분석 |
| 2.2 독서치료의 범주 | 6. 결 론 |
| 3. 연구의 설계 |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다룰 수 있는 독서치료의 위기상황 범주를 개발하고, 그 중에서 어린이들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독서치료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독서치료가 공공도서관 서비스로 구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험연구를 통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독서치료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ategories of the bibliotherapy program in the public libraries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group bibliotherapy program for the decreasing aggressive behavior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program was very impressive and its expansion to the public library service is required.

키워드: 독서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공격성, 어린이

Bibliotherapy, Bibliotherapy Program, Public Library, Aggressive Behavi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박사(slib@dreamwiz.com)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8월 20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현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정서적으로 균형을 잃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정신건강 문제를 위협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 그동안 수동적인 이용자에 머물렀던 어린이들이 미래에는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반으로 변화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 이용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독서치료 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공헌과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독서치료는 책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심신의 안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은 책을 주요한 자원으로 하는 공공기관이고, 어린이들은 도서관을 통해 책을 접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적자에게 적서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 개념이고, 독서치료에서는 상황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여 읽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독서치료를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독서치료의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공공도서

관에서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해 어린이 독서치료의 범주와 어린이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독서치료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의 이론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적 독서치료가 가능한 범주를 마련하였다. 독서치료 범주는 선행된 국내외 자료를 통한 어린이들의 위기상황 유형을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위기상황의 범주를 “나, 죽음, 질병·치료, 복합가정, 관계”의 5가지로 세분하였다.

실험연구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예비실험에서는 5, 6학년 10명을 대상으로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8회 실시하였고, 공격성 검사, 한국아동인성 검사(KPI-C)의 사전, 사후측정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내용과 자료 목록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연구대상을 서울 G공공도서관의 인근 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에서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3개 초등학교 5, 6학년에 “공격성”검사지 1,021부를 배포하여 1,019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답변을 한 7부는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1,012명 중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303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1차 신청자는 37명이었다. 부모님과의 전화 면담을 통해 최종 31명이 선정되었으며, 실험 집단(16명)과 통제집단(15명)으로 무작위 할당되어 실험이 이루어졌고, 연구결과 분석에서는 실험집단에서 1명이 중도 탈락하여 3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매주 1회 60분씩을 원칙으로 하여 G공공도서관에서 5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16회에 걸쳐 실험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수집방법은 척도 측정과 프로그램 결과물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실험집단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에게 사전과 사후 검사를 통해 독서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효과의 지속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후평가가 실험종료 1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서치료용 목록은 한국도서관협회(1999)의 『상황별 독서목록』, 한국독서치료학회(2004)의 『독서치료의 실제』, 울산 남부도서관(2004)의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도서목록』, 부산 남구도서관(2004)의 『어린이용 독서치료 목록』에서 공격성과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188권을 1차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자들의 자료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서 선정 기준 점수표』를 통해 최종 16권을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라는 용어를 미국도서관협회산하 병원 및 공공기관 협의회가 받아들인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에 대한 치료, 더 나아가 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Moody and Limper 1971) 이라고 폭넓게 해석하여 최

근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독서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독서치료를 받는 대상을 내담자, 대상자, 참여자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린이는 초등학생으로 보았다.

2.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2.1 독서치료의 개념

미국에서 독서치료가 문헌정보학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04년, Massachusetts주의 Waverly에 있는 Mclean 병원에 근무했던 Jones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책을 사용한 최초의 사서로 독서치료를 실시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Rubin 1978, 14). 그 이후 사서들은 꾸준히 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사용하였는데 독서치료사로 활동한 사람들로는 Dubois, Foreman, Pomeroy, Bishop, Macrum, Delaney, Kamman, Jones가 있었다(Burt 1972, 19).

독서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1962년 『Library Trends』 11권 2호는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만으로 구성되어 발표되었고, 이를 계기로 Saint Louis에서 독서치료 워크숍이 열렸는데, 정신의학, 임상심리, 정신과간호, 사회복지, 사서,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도서관의 현장서비스, 문헌에 대한 지식 습득, 심리학 교육 등을 포함한 훈련프로그램 모델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신 건강의 예방과 치료의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써 “임상 사서 (Clinical Librarian)”의 확산이 제기되기도 하였다(Moody and Limper 1971, 5-6).

도서관에서 독서치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병원 및 공공기관 협의회(Association of Hospital and Institution Libraries, AHIL)에서 1966년에 이루어졌다.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61, 212)에 “선정된 독서 자료를 의학, 정신의학에서 보조 치료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지시된 독서를 통해 개인적 문제 해결의 지침”이라고 수록된 정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Tews 1962). 또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에 대한 치료, 더 나아가 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 사회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작업”이라는 “치료”에 대한 정의도 협의회는 함께 받아들였다(Moody and Limper 1971).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사공철 외 1996, 93)에서는 “정신 건강상 또는 신체의학상 치료를 목적으로 독서를 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도서관협회는 “치료”라는 개념이 포함된 문제해결이나 환경적응을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하나로 독서치료를 정의하고 있다.

Monroe(1971, 40-44)는 독서치료를 “독서상담”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여 독서상담의 범주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Hannigan(1962)도 “독서상담가로서 일상적인 사서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하여 독서치료를 독서상담 서비스의 파생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Mitchell-kamalie(2002)는 독서상담은 이용자가 제시한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서치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서상담에서 사서의 역할은 책과 이용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즐거운 경험을 하고 책을 읽고 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독서상담 사서는 이용자들이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독서상담은 독자를 좋은 독자로 변화시키는 것인 반면 독서치료는 사서가 건강한 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팀과 함께 정신적 또는 의학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람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참고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서비스인 것이다.

책을 통해 이용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치료는 이용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독서치료에 있어서 사서의 활동 영역은 적절한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토론과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서는 어떤 자료가 어떤 문제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독서상담과 독서치료가 면대면 서비스로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개별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독서치료는 위기의 순간에 처한 이용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독서상담보다 그 영역이 더 깊고 전문적이라 할 수 있다. 독서상담과 독서치료가 참고정보 서비스의 범주 안에서 발전한 것으로 최근에는 독서치료를 독서상담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2 독서치료의 범주

독서치료는 어린이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또는 치료적 특성을 지니므로 독서치료의 범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범주가 선행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범주는 기질이나 상처와 같은 개개인의 특성, 부모-자녀 관계나 가족의 형태와 같은 가족 내적인 요인들, 이웃이나 학교, 환경과 같은 가족 외적인 요인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형제자매와의 격리 및 부모의 이혼, 복합적인 가족구조, 죽음, 질병,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하나 이상의 위기상황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몇 가지의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 각각의 단순한 원인으로 인한 효과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여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어린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위기상황 및 정서장애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데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Parod와 Caplan(1965)은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였고, Stein, Beyer, Ronal(1975)은 어린이들의 삶에 영향

을 끼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죽음, 이혼, 질병, 학대의 4가지 위기상황을 지목하였다. 또 Bernstein(1977), Fassler(1978), Pardeck(1998)은 독서치료를 통한 위기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Mohr, Nixon, Vickers(1991)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위기상황을 7가지로 대구분한 후, 다시 10~13가지 정도로 구분하였다.

국내의 경우, 한국도서관협회(1999)는 문헌정보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분류를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상황은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심리상태나 시·공간적 환경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학과 유아교육학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독서치료학회(2004)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문제의 이해까지 위험 요인을 7가지로 대구분한 후 다시 3~4가지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 남부도서관(2004)과 부산 남구도서관(2004)은 심리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크게 나누어 상황을 구분한 후 다시 자세한 위기상황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위기상황의 범주를 유형별로 구분했고, 그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한윤옥(2003, 2004)은 소아기(100), 청소년기(200), 성인기(300), 노년기(400) 등으로 연령에 따라 대분류를 하고, 대분류 아래에 인간 자체에 대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심리학, 종교, 정신분석학 등의 번호를 차례로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만을 어린이로 규정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어린이 독서치료의 위기상황 범주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위기상황의 유형을

“나, 죽음, 질병·치료, 복합가정, 관계”의 5

가지로 크게 구분하였고, 필요한 항목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표 1>을 작성하였다.

<표 1> 어린이 독서치료의 위기상황 범주

위험 요인	분류 번호	항목	분류 번호	세목	위험 요인	분류 번호	항목	분류 번호	세목	
나 (100)	110	내 존재의 이해			죽음 (200)	210	죽음의 이해			
	120	수용과 거부				220	수용과 거부			
	130	나와 사람들	131	나와 아버지		230	죽음과 사람들	231	죽음과 아버지	
			132	나와 어머니				232	죽음과 어머니	
			133	나와 형제자매				233	죽음과 형제자매	
			134	나와 조부모				234	죽음과 조부모	
			135	나와 친구				235	죽음과 친구	
			136	나와 선생님				236	죽음과 선생님	
			137	나와 다른사람들				237	죽음과 다른사람들	
	140	감정	141	화, 분노		240	감정	241	화, 분노	
			142	불안과 두려움				242	불안과 두려움	
			143	슬픔과 고통				243	슬픔과 고통	
			144	외로움				244	외로움	
			145	사랑				245	사랑	
			146	자신감				246	자신감	
			147	용기				247	용기	
			148	극복				248	극복	
			149	배려				249	배려	
		150	나의 특성	151		과잉행동을 하는 나	250	죽음의 종류	251	자연사
				152		산만한 나			252	사고사
			153	자신감이 없는 나			253	의문사		
			154	예민한 나			254	자살		
			155	감정 표현이 어려운 나			255	애완동물의 죽음		
			156	소유욕이 지나친 나						
			157	과시욕이 지나친 나						
질병 치료 (300)	310	질병의 이해			복합 가정 (400)	410	복합가정의 이해			
	320	수용과 거부				420	수용과 거부			
	330	질병과 사람들	331	질병과 아버지		430	복합가정과 사람들	431	복합가정과 아버지	
			332	질병과 어머니				432	복합가정과 어머니	

		333	질병과 형제자매			433	복합가정과 형제자매	
		334	질병과 조부모			434	복합가정과 조부모	
		335	질병과 친구			435	복합가정과 친구	
		336	질병과 선생님			436	복합가정과 선생님	
		337	질병과 다른사람들			437	복합가정과 다른사람들	
	340	감정			440	감정		
			341	화, 분노			441	화, 분노
			342	불안과 두려움			442	불안과 두려움
			343	슬픔과 고통			443	슬픔과 고통
			344	외로움			444	외로움
			345	사랑			445	사랑
			346	자신감			446	자신감
			347	용기			447	용기
			348	극복			448	극복
			349	배려			449	배려
	350	질병의 정도				450	복합가정의 형태	
			351	만성질병			451	별거
			352	급성질병			452	이혼
			353	희귀병			453	재혼
			354	질병말기			454	동거
			355	질병회복기			455	입양
			356	질병초기			456	보육시설
			357	장기 치료				
			358	단기 치료				
	510	관계에 대한 이해				550	관계의 어려움	
	520	수용과 거부					551	신체장애가 있는 부모와의 관계
	530	사람들과 관계	531	아버지와의 관계			552	정서장애가 있는 부모와의 관계
			532	어머니와의 관계			553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
			533	형제자매와 관계			554	양부모와의 관계
			534	조부모와의 관계				
			535	친구와의 관계				
			536	선생님과의 관계				
			537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 (500)					관계 (500)			
	540	감정						
			541	화, 분노				
			542	불안과 두려움				
			543	슬픔과 고통				
			544	외로움				
			545	사랑				
			546	자신감				
			547	용기				
			548	극복				
			549	배려				

3. 연구의 설계

공공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어린이 독서치료의 위기상황 범주를 마련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해봄으로써 공공도서관 서비스로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하였다. 독서치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16회에 걸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고, 평가 척도를 통해 나타난 변화를 SPSS for Windows 12.0 Version으로 양적 분석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장완성 검사를 통해 내용과약을 하는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표 1>에 제시한 “어린이 독서치료의 위기상황 범주” 중 감정의 영역에서 화·분노를 중심기제로 하며 이로 인해 유발되는 “공격성”이 독서치료를 통해 감소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격성은 공격성의 사회적인 개념까지 포함시켜 “관찰 가능한 행동 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해적 행동”(Bandura, 1965)을 공격성이라고 정의하였다.

4. 측정도구

독서치료에 있어서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가진 집단끼리의 조직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유사한 집단으로 조직이 될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독서치료 집단을 이끄는 치료자에 의한 자극보다 더 많은 자극을 집단 상호간에 주고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측정도구는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 인구학적 설문지, 공격성 척도, 분노 척도, 한국이동인성 검사(KPI-C)를 실시하였으며, 문장완성 검사는 질적 내용 분석을 위해 실시하였다.

4.1 사회 인구학적 설문

참여자의 인구학적 질문과 독서수준 및 태도를 묻는 항목으로 마련하여 사전 동질성 분석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항목으로는 참여자의 성별, 연령, 부모의 직업, 부모의 연령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항목과 일주일에 책을 읽은 권수, 책을 좋아하는 정도 등의 독서태도와 도서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2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뿐만 아니라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소외하려는 공격의 형태를 포함한 광의의 공격성 개념을 적용하고자 Crick과 Werner(1998)의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1~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 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10~40점이다. 외현적 공격성은 1번 문항부터 5번 문항까지이고, 관계

적 공격성은 6번 문항부터 10번 문항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사전에 .85, 사후에 .92, 추후에 .84였다.

4.3 분노 척도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추후에 참여자들의 분노수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Novaco(1994)가 개발한 분노 척도를 남궁희승(199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촉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Part A와 분노강도의 지표 및 분노촉발 상황의 잠재적 범위를 측정하는 Part B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Part A만을 사용하였다. Part A는 인지영역, 각성영역, 행동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척도의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1~3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답안(13번, 16번)은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사전에 .77, 사후에 .85, 추후에 .73이었다.

4.4 문장완성 검사

문장완성 검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 개인의 욕구나 동기를 발견하여 문장을 완성한 검사이다. 검사에 나타나는 반응은 가족에 대한 태도, 사회적 태도, 자기인식 태도, 일반적 태도, 성격특성 등이 나타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사

전, 사후의 심리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내용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4.5 한국아동인성 검사(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

한국아동인성 검사는 임상장면에서 아동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선별진단하고 학교장면에서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검사이다(홍창희 외 2003). 4개의 타당도 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 점수는 T 점수 65점이고, 비행척도와 과잉행동척도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타당도 척도와 비행, 과잉행동, 불안 척도의 3개 임상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사전에 .78, 사후에 .83, 추후에 .85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의 분석

5.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분석

5.1.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독서수준 분석
<표 2>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볼 때 비슷한 집단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변인	내용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연령	평균 연령	11.8세	11.7세
성별	남자	5(33.3)	6(40.0)
	여자	10(66.6)	9(60.0)
학년	5학년	8(53.3)	5(33.3)
	6학년	7(46.6)	10(66.6)
부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5(33.3)* 8(53.3)**	4(26.6)* 6(40.0)**
	대학교 졸업	8(53.3)* 6(40.0)**	8(53.3)* 7(46.6)**
	대학원 이상	2(13.3)* 1(6.6)**	3(20.0)* 2(13.3)**
부 직업	숙련직	1(6.6)	- (0)
	판매직	2(13.3)	4(26.6)
	사무직	8(53.3)	7(46.6)
	관리직	3(20.0)	4(26.6)
	전문직	1(6.6)	- (0)
독서량	일주일에 6~10권	1(6.6)	1(6.6)
	일주일에 3~5권	4(26.6)	6(40.0)
	일주일에 1~2권	10(66.6)	8(53.3)
	읽지 않는다	- (0)	- (0)
책 선호도	매우 좋다	- (0)	1(6.6)
	좋다	8(53.3)	9(60.0)
	그저 그렇다	7(46.6)	5(33.3)
	전혀 좋지 않다	- (0)	- (0)

*는 아버지, **는 어머니의 경우임.

5.1.2 아동용 측정도구의 사전 동질성 분석
공격성 검사의 동질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된 t-검증 결과 사전 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27.80으로 통제집단의 27.73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041, p=.968$).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 집단임이 입증되었다.

분노 검사의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90.80으로 통제집단의 91.60보다 낮았으나 이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325, p=.748$).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 집단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아동용 측정도구인 공격성, 분노 검사에서 실험 실시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표 3〉

〈표 3〉 아동용 측정도구의 사전 분석

검사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df	t	p
공격성	실험집단	27.80	4.41	28	.041	.968
	통제집단	27.73	4.56			
분노	실험집단	90.80	5.81	28	-.325	.748
	통제집단	91.60	7.58			

5.1.3 부모용 측정도구의 사전 동질성 분석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30명에 대한 타당도에 속하는 “검사-재검사 척도, 부정 척도, 일탈반응 척도”의 T점수가 60이상을 상승하는 극단적인 분포를 보인 답변 검사지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41.07에서 51.00의 분포를 보이며 6.75에서 15.66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상척도에 있어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5.2 실험집단내 측정 시기별 효과 분석

5.2.1 아동용 실험집단내 측정 시기별 효과 분석

실험집단을 사전, 사후, 추후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변화량을 측정하였는데 <표 5>와 같다.

1) 공격성에 대한 측정시기별 효과 분석 결과 <표 6>은 사전에서 사후로, 사후에서 추후로의 독서치료에 의한 공격성의 감소 효과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공격성이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다른 척도와 달리 행동에 대한 결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2) 분노에 대한 측정시기별 효과 분석 결과 <표 7>은 독서치료가 종결된 이후의 분노 감정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분노 감정의 감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추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여전히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상의 결과로

<표 4> 부모용 측정도구의 사전 분석

척도	하위척도	구분	T점수	표준편차	df	t	p
타당도 척도	검사재검사	실험집단	46.27	11.28	28	-.323	.749
		통제집단	47.47	8.94			
	부정	실험집단	46.60	9.23	28	-1.490	.147
통제집단	51.00	6.75					
임상 척도	일탈반응	실험집단	42.80	14.24	28	.317	.754
		통제집단	41.07	15.66			
	비행	실험집단	53.40	7.59	28	.786	.439
통제집단			51.40	6.30			
과잉행동		실험집단	52.80	9.01	28	.896	.378
	통제집단		50.13	7.19			
	불안	실험집단	51.20	9.06	28	.034	.973
통제집단		51.07	12.34				

<표 5> 아동용 측정도구의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명	사전		사후		추후	
	M	SD	M	SD	M	SD
공격성	27.80	4.41	20.67	2.92	19.87	3.04
분노	90.80	5.81	82.13	5.18	83.67	4.51

〈표 6〉 공격성의 실험집단내 분석 결과

척도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			
	M	SD	t	p	M	SD	t	p	M	SD	t	p
공격성	-7.13	4.12	-6.704	.000**	-7.93	4.10	-7.501	.000**	-.80	1.37	-2.256	.041*

* p < .05, ** p < .001

인해 실험집단의 분노 감소를 위한 독서치료의 효과는 단기적이며 추후개입이 없으면 분노감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깊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5.2.2 부모용 실험집단내 측정 시기별 효과 분석

〈표 8〉과 같이 타당도에 해당하는 “검사-재검사 척도, 부정 척도, 일탈반응 척도”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에서 T점수가 60이상을 상승하는 극단적인 분포를 보인 검사지가 없었고, 측

정시기 모두 40.07에서 49.73의 분포를 보였으므로 한국아동인성 검사의 타당도는 신뢰할만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1) 비행에 대한 측정시기별 효과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비행에 대한 사전-사후 비행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t = -3.287, p < .01), 사전-추후 또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t = -2.882, p < .05). 그러나 사후-추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 = .437, ns). 따라서 비행의 측정시기에 따른 감소 효과는 사전-사후, 사전-추후에 지속되었다.〈표 9〉

〈표 7〉 분노의 집단내 분석 결과

척도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			
	M	SD	t	p	M	SD	t	p	M	SD	t	p
분노	-8.67	3.39	-9.888	.000**	-7.13	3.70	-7.465	.000**	1.53	2.26	2.624	.020*

* p < .05, ** p < .001

〈표 8〉 부모용 측정도구의 측정시기별 T점수와 표준편차

검사명	사전		사후		추후		
	T점수	표준편차	T점수	표준편차	T점수	표준편차	
타당도	검사-재검사	46.27	11.28	46.73	9.65	49.73	8.91
	부정	46.60	9.23	46.61	7.87	47.60	7.93
	일탈반응	42.80	14.24	41.80	14.32	40.07	14.81
임상 척도	비행	53.40	7.59	43.60	8.02	44.53	9.36
	과잉행동	52.80	9.01	42.87	8.69	41.07	13.17
	불안	51.20	9.06	42.80	3.69	43.27	5.01

〈표 9〉 비행의 실험집단내 분석 결과

척도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			
	T점수	SD	t	p	T점수	SD	t	p	T점수	SD	t	p
비행	-9.80	11.55	-3.287	.005**	-8.87	11.92	-2.882	.012*	.93	8.27	.437	.669

* p < .05, ** p < .01

2) 과잉행동에 대한 측정시기별 효과 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실험집단의 과잉행동에 대한 사전-사후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하였고(t=-4.601, p<.001), 사전-추후의 변화량도 유의미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t=-3.822, p<.01). 그러나 사후-추후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703, ns).

사후-추후 평가에서 앞서 기술한 비행 척도의 수치는 오히려 증가한 것에 반해 과잉행동 척도의 수치는 미비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부모들이 평가한 것으로 볼 때 독서치료에 의한 과잉행동의 감소 효과가 비행 척도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3) 불안에 대한 측정시기별 효과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량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t=-4.014, p<.01), 사전-추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t=-3.078, p<.01). 그러나 사후-추후의 변화량은 미비하기는 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다(t=.372, ns).〈표 11〉

5.3 문장완성 검사의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비구조화된 의사소통 자료를 특정한 분석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재해석함으로써 어떠한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내용 분석을 위한 단위로는 단어, 주제, 인물, 문단, 항목, 개념, 의미 등이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와 의미를 단위로 하여 내용 분석을 하였다.

〈표 10〉 과잉행동의 실험집단내 분석 결과

척도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			
	T점수	SD	t	p	T점수	SD	t	p	T점수	SD	t	p
과잉행동	-9.93	8.36	-4.601	.000**	-11.73	11.89	-3.822	.002*	-1.80	9.92	-.703	.494

* p < .01, ** p < .001

〈표 11〉 불안의 집단내 분석 결과

척도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			
	T점수	SD	t	p	T점수	SD	t	p	T점수	SD	t	p
불안	-8.40	8.10	-4.041	.001*	-7.93	9.98	-3.078	.008*	.47	4.85	.372	.715

* p < .01

내용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 이외에 독서치료사 과정을 이수한 독서치료사 1명이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1단계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공격성”에 대해서는 “공격 행동, 공격적 표현, 부정적 표현”으로 하위범주를 정하고, “분노”에 대해서는 “화, 불안감, 공포, 외로움”으로 하위범주를 정하는 범주화 합의 과정을 거쳤다. 2단계로 실험집단의 참여자들에게 “문장완성 검사”를 실시하여 문장을 완성한 내용의 단어와 의미를 분석하면서 합의된 범주 틀에 해당 단어와 의미를 분류해 넣는 부호화(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작업 결과 두 연구자가 총 495개의 응답 중 “공격성, 분노”에 속하는 문항만을 추출하였는데, 사전에는 293개가 일치하였고, 사후에는 191개가 일치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1차 부호화의 경우, 사전에는 293개의 응답 중 261개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 89%의 일치도를 보였고, 사후에는 191개의 응답 중 174개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 91%의 일치도를 보였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공격성, 분노”에 속하는 문항 추출수가 적은 것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공격 행동과 분노 감정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기관으로써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주민 참여가 가능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서비스로서 독서치료를 통해 어린이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실험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독서치료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와 사서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와 함께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독서치료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의 사회적 공헌과 영향력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독서치료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므로 공공도서관에서 또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서비스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독서치료를 담당할 훈련된 사서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공공도서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준비해 볼 수 있다.

첫째, 독서치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범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을 지정한다.

둘째,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독서치료에 대한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실습까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한다.

셋째, 기존 이동도서관의 확대된 서비스로서 복지관, 노인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등의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남궁희승. 1997.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부산 남구도서관 편. 2004. 『성인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도서목록』. 부산: 부산 남구도서관.
- 사공철 외. 1996.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울산 남부도서관 편. 2004.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 치유 도서목록』. 울산: 울산 남부도서관.
- 한국도서관협회. 1999. 『상황별도서목록』.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독서치료학회. 2004. 『독서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한윤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5-25.
- . 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II: 사례 분석을 통한 상황 설정 및 분류체계 예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5-25.
- 홍창희 외. 2003. 『한국아동인성 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Bandura, A. 1965. "Influence of model reinforcement contingencies on the acquisition of imitative respon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89-595.
- Bernstein, J. E. 1977. *Books to help children cope with separation and loss*. New York: R. R. Bowker.
- Burt, L. N. 1972. *Bibliotherapy: Effect of Group Reading and Discussion on Attitudes of Adult Inmates in Two Correctional Institutions*. Ph.D. dis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Crick, N. R. and N. E. Werner. 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Fassler, J. 1978. *Helping children cope: Mastering stress through books*. New York: The Free Press.
- Gove, P. B. 196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Springfield: Merriam.
- Hannigan, M. G. 1962. "The Librarian in Bibliotherapy: Pharmacist or Bibliotherapist?" *Library Trends*, 11(2): 184-198.
- Mitchell-Karnalje, L. 2002. *The application of Bibliotherapy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living in a violent socie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 Mohr, C., D. Nixon and S. Vickers. 1991. *Books that heal: whole language app-*

- roach, Colorado: Teacher Ideas Press.
- Monroe, M. E. 1971. *Reading Guidance and Bibliotherapy in Public, Hospital and Institution Libraries, a Selection of Papers Presented at a Series of Adult Services Institutes, 1965-1968*. Madison: Library School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oody, M. T. and H. K. Limper. 1971. *Bibliotherapy: Methods and Material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Parad, H. and G. Caplan. 1965. *A Framework for studying families in crisis*.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 Pardeck, J. T. 1998. *Using book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Guide to Bibliotherapy*. New York: The Haworth Press.
- Rubin, R. J. 1978.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Phoenix, AZ: Oryx Press.
- Stein, M., E. Beyer, and D. Ronald. 1975. "Beyond benevolence: The mental health role of the preschool teacher." *Young Children*, 30: 358-372.
- Tews, R. M. 1962. "Introduction." *Library Trends*, 11(2): 97-105.